

방데전쟁의 폭력성 - 학살인가 제노사이드인가?

김 응 종*

1. 머리말
2. 반(反)혁명전쟁
3. 양민 학살
4. 누구의 책임인가?
5. 맺음말

1. 머리말

방데전쟁(La guerre de Vendée)이란 프랑스혁명이 한창이던 1793년 3월에 프랑스 서부의 방데 지방에서 일어난 반(反)혁명전쟁을 말한다. 방데의 농민군은 초기에는 승승장구하였으나 1793년 10월 솔레 전투에서 패한 후 루아르 강을 넘어 유랑하다가 최종적으로 1793년 12월 말 사브내 전투에서 와해되었다. 엄밀한 의미의

* 충남대학교 서양사 교수

전쟁은 이 9개월간의 내전을 말한다. 전쟁이 끝나면 승자의 전후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방데전쟁의 경우에 전후처리의 폭력성은 동시대인들도 경악시킬 정도로 끔찍했다. 전쟁포로는 물론이고 여자, 어린이, 노인들과 같은 비무장인들, 나아가 공화파 주민들, 다시 말하면 “전(全)주민”을 대상으로 야만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내전과 내전 이후의 ‘최종해결책’으로 전체 주민의 20%인 20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¹⁾

프랑스혁명사에서 오랫동안 방데전쟁은 1793년 10월 1일에 공안위원 베르트랑 바래르가 국민공회에서 ‘방데 파괴’ 입법을 제안하며 사용한 “이해할 수 없는 방데”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다. 혁명가들은 농민이 자기들을 해방시킨 자유와 평등의 혁명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무지한 농민들이 반동적인 귀족과 광신적인 사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했다.²⁾ 미술레의 공화파적인 연구 이래 방데전쟁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농민들의 무지, 광신적인 사제들의 사주, 그리고 사제와 농민 사이의 매개체인 여성의 불온한 역할 등이었다. 1960년대 이후 사회경제사가 유행하면서 이해의 틀은 종교에서 사회경제로 옮겨갔다. 폴 부아는 도시 부르주아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부농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았고, 찰스 킬리는 절대왕정기에 진행된 도시 중심의 중앙집권주의가 혁명기에 강화되어 농민들이 반발했다고 본 반면, 도날드

1)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Geste éditions, 1996, p.46. 이 20만 명은 방데 지역에 있던 공화파 주민을 포함한 수치이다. 최근에 방데전쟁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레날 세세르는 1792년과 1802년 사이에 최소 117,257명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 815,029명의 14.38%이다.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errin, 1986, p.253. 60만 명이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나 2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희생자 수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오광호, 「방데전쟁과 ‘집단학살」, 『역사와 담론』 53집, 2009년 8월.

2) François Furet, “Vendée”, François Furet, Monat Ozouf(ed.),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1988, p.191.

서덜랜드는 오히려 빈농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데농민군에 가담했던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은 『회고록』에서 귀족과 성직자 농민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온정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브 마리 베르세는 소교구 단위의 농촌공동체에서 맺어진 이러한 유대가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을 도와주었으며, 농민들로 하여금 곤경에 처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을 구하러 나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1985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렌 대학에서 “혁명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공화파 해석이나 사회경제적 해석에서 노출된 단순한 도식을 넘어, 서부에서 반혁명이 일어난 “배경”을 “주민들의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고립”, “제한된 도시화”, “성직자와 귀족의 권위” 등에서 찾았다.³⁾

그동안 방데전쟁에 대한 연구는 방데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을 방데의 지역적 특징에서 찾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렇지만, 방데전쟁은 그것이 “반혁명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미 ‘악’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방데전쟁은 부끄러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방데인들에게는 반혁명적이고 반역적인 내전이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사건이었고, 혁명파에게는 방데의 전면적인 파괴와 방데인들의 절멸을 목적으로 전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공화주의 역사가들이나 정통주의 역사가들이 방데전쟁을 축소하고, 전후처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날 세세르가 1986년에 발표한 『방데-방제. 프랑스인의 프랑스인 제노사이드』는 방데전쟁에 대한 침묵을 깨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⁴⁾ 레날 세세르는 1793년에 방데인들이

3) Roger Dupuy, *Les Chouans*, Hachette, 1997, pp.260~265.

4)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errin, 1985년의 국가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책의 제목에 있는 ‘방제’

봉기를 일으킨 것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저항권을 천명한 것으로, 방데전쟁은 반란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인신의 안전, 재산의 보존을 위한 십자군”이라고 주장했다.⁵⁾ 특히 그의 책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데전쟁의 전후처리를 나치의 유대인학살과 같은 성격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이었다. 2011년, 레날 세셰르는 『방데: 제노사이드에서 기억학살로. 법에 의한 반(反)인류범죄의 메카니크』에서 논쟁을 격화시켰다.⁶⁾

레날 세셰르가 방데전쟁을 반혁명전쟁이 아니라 혁명을 지키는 “자유 십자군”으로 복권시키고, 공포정치를 국가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제노사이드 같은 반인류범죄로 단죄하자, 그동안 방데전쟁에 대한 해석을 수호해오던 정통주의 역사학자들의 반격이 없을 수 없었다. 이 역할을 담당한 장 클레망 마르탱은 조르주 르페브르-알베르 소블-미셸 보벨로 이어진 프랑스혁명의 정통주의 해석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방데전쟁 전문가이기 때문에 논쟁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맴돌지 않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통주의 역사학자들도 방데전쟁과 전후처리과정에서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 장 클레망 마르탱은 제노사이드를 주장하는 레날 세셰르보다 희생자 수를 더 높게 추산할 정도이다. 그러나 전후처리과정에서 자행된 대학살의 책임이 어디에

(Vengé)라는 이름은 도(道)의 이름을 기존의 방데에서 방제로 바꾸는 1793년 11월 8일(혁명력 2년 브뤼메르 18일)의 국민공회 법에서 나온 말이다. 방제(Vengé)는 Venger(보복하다)의 과거분사이니, 국가의 보복의지가 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Fontenay-le-Comte(퐁트네-백작)와 Lyon은 고유의 이름을 빼앗기고 각각 Fontenay-le-Peuple(퐁트네-인민)과 Ville-Affranchie(해방된 도시)로 개명당했다.

5)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p.295.

6) Reynald Secher, *Vendée: Du Génocide au Mémoricide. Mécanique d'un crime légal contre l'humanité*, Préface de Gilles-William Goldnadel, Postface de Hélène Piralian, Stéphane Courtois, Les Editions du Cerf, 2011.

있나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레날 세세르는 학살이 국민공회의 법에 의한 체계적인 학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장 클레망 마르탱은 국민공회와 로베스피에르가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학살을 반대하는 가운데 현지 군사령관이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쟁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가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이 글은 양측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면서 프랑스혁명과 방데전쟁에 대해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2. 반(反)혁명전쟁

1789년에 혁명이 발발했을 때, 방데인들은 여타 지역의 프랑스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서부의 농민들도 구체제의 영주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부역, 민병대 군역, 그리고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혁명 전에 이들이 작성한 진정서에는 그러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이들은 혁명의 근본원칙을 환영했다. 교회재산의 몰수와 판매에 대해서도 환영했다.⁷⁾ 그러나 이러한 밀월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방데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성직자민사기본법과 성직자들의 선서강요였다. 1790년 7월 12일 제헌국민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그해 8월 24일 루이16세가 공포한 성직자민사기본법은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하나의 도(道)에 하나의 주교구를 설치함으로써 주교구의 수가 종전의 130개에서 83개로

7)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p.37~60.

수가 줄어들었으며, 주교와 본당 신부는 신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그해 말부터 성직자들에게 선서를 강요하여, 선서를 거부한 신부는 신부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낭트 교구의 주교는 선서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교황도 이를 재가했다. 낭트에서는 1058명 가운데 159명, 방데에서는 768명 가운데 207명, 앙주에서는 332명 가운데 44명만이 선서할 정도로 선서 비율이 매우 낮았다. 선서거부신부들이 성당에서 쫓겨나고 낮선 선서신부가 부임해 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선서신부를 거부하고, 아이들의 영세를 선서거부신부에게 부탁하기도 했으며,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성사를 받게 했다. 선서거부신부는 망명을 떠나거나 비밀교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반정부적인 설교를 했다. 이후 혁명의 역사에서 선서거부신부들은 반혁명용의자로 낙인찍혀 고난을 당한다.⁸⁾

방데전쟁은 1793년 3월에 시작되지만, 정부와 농민 사이의 충돌은 이미 179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5월, 한 농민은 “나의 신을 돌려다오”라고 외치며 죽었다.⁹⁾ 1792년 8월에는 브레쉬르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¹⁰⁾ 1793년 1월 21일에 일어난 루이16세 처형은 혁명가들을 분열시켰고 농민들을 동요시켰지만, 방데전쟁을 촉발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1793년 2월 23일, 국민공회가 30만 명을 징집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18살에서 40세까지의 독신남자들은 징집자를 결정하는 추첨에 응해야 했다. 이 결정은 구체제에서 시행되던 민병대 제도의 연장

8) *Ibid.*, pp.66~96.

9)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aris, 제6판, 1848, p.91. 이 이야기는 가공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로 확인되었다. Alain Gérard, “La Vendée comme expérience spirituelle”, *Mémoires d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Edition critique établie et présentée par Alain Gérard, Collection mémoire de Vendée, 2010, p.29.

10) 진압에 나선 국민방위대는 코, 귀, 살덩어리 등을 총검에 꼽고 전리품으로 가져갔다(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94).

이었다. 농민들은 혁명 전의 진정서에서 민병대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혁명 이후에서도 그것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였다. 게다가 행정관리들은 징집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불평등에 대해 농민들은 분노했다. 1793년 3월 10일, 마슈쿨, 보부아르, 생플로랑르 비외이유, 솔레 등지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공식적인 방데전쟁은 3월 19일, 이들을 진압하러 온 라로셀 주둔군의 마르세 장군이 지휘하는 전열부대가 패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날, 국민공회는 무기를 지참하거나 백색 휘장을 두른 반도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했다.

방데의 농민들은 시청을 점령하고, 행정문서를 파괴하고, 삼색기를 찢고, 무기고를 점령하고, 행정관들을 포로로 잡았다. 한 농민의 외침에는 방데인의 불만이 압축되어 있다: “그들은 우리의 왕을 죽였다. 그들은 우리의 신부들을 몰아냈고, 우리 교회의 재산을 팔았다. 돈은 어디 갔나? 그들이 모두 먹어치웠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것을 갖지 못할 것이다!”¹¹⁾ 구체제의 농민봉기가 그러했듯이, 학살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마슈쿨에서 160여명의 애국파를 학살했다.¹²⁾ 방데전쟁 내내 학살은 보복을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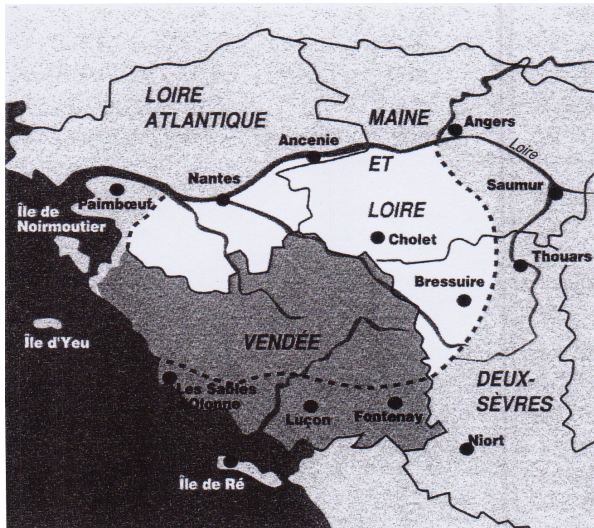
방데전쟁은 강제징집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봉기로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귀족들의 반혁명음모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듯이, 농민봉기는 귀족의 반혁명 음모와 관련이 없었다. 귀족들은 초기에는 농민봉기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나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고 지휘를 맡았다.¹³⁾ 그러나 파리의 혁명가들은 방데전쟁을 단순한 농민봉기로

11)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111.

12)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p.16. 농민군은 500~600명을 학살한 것으로 소문이 났지만 이름을 확인되는 사람은 160명 정도이다.

13)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98.

여기저 않고 국내외의 왕당파 및 내부의 배신적인 온건혁명파와 연계되어 있는 반혁명전쟁으로 규정했다. 서부의 라로셀 주둔군 사령관이었으며 지롱드파와 가까웠던 뒤무리에 장군이 적의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러한 의심은 더욱 굳어졌다.¹⁴⁾ 방데의 농민봉기는 처음부터 특별한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특별한 전쟁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4월 6일,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일 정오에 방데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방데는 혁명정부의 제1적(敵)이 되었다.



출처 :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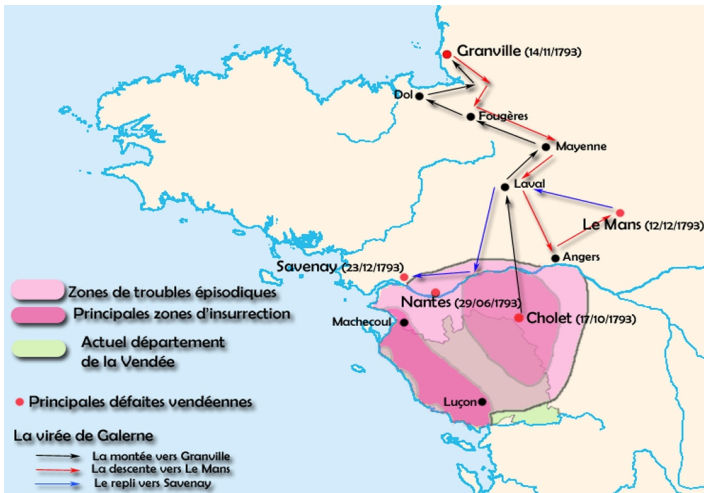
이제까지 편의상 방데전쟁, 방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여기에서의 방데가 행정구역상의 방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¹⁵⁾ 아래(위) 지도에서 점선으로 에워싸인 부분이 방데전쟁의 무대였던

14) Jean-Clément Martin, *Contre-Révolution, Révolution et Nation en France 1789~1799*, Seuil, 1998, p.171, 210.

15) 방데는 푸아투 지방을 흐르는 한 작은 강의 이름이다. 1790년 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푸아투 지방(province)의 한 도(道)를 방데라고 명명했다.

방대전역(戰域)(Vendée militaire)이다. 방대전역은 방데, 루아르 아틀랑티크, 맨 에 루아르, 뒤 세브르의 4개의 도 가운데 루아르 강 이남 지역을 지칭한다. 공화파는 행정구역상으로 방데가 아닌 도(道)의 사람들, 나아가 반혁명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방데인이라는 통칭을 사용했다.

방대전쟁 초기에는 ‘백군’이 ‘청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¹⁶⁾ 농민들은 청군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갖추고, 귀족들을 지휘관으로 영입하여 지휘체계를 정비했다. 보카주라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농민들은 전투를 끝내면 다시 밭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는 등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다. 백군의 기세가 꺾인 것은 6월 29일 서부 최대의 항구인 낭트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면서부터이다. 1793년 10월 17일의 솔레 전투의 패배는 결정적이었다.



출처 : “Vendée militaire”, Wikipédia.

16) 농민군은 국왕의 색깔인 흰색 휘장을 들렀기 때문에 백군이라고 불렸고, 혁명군은 국민방위대의 복색이 청색이기 때문에 청군으로 불렸다. 백군은 붉은색 심장 위에 십자가가 그려진 표식을 착용하기도 했다.

이날, 24,000여 명의 청군은 40,000여 명의 백군을 상대로 공세를 취해 승리를 거두었다. 8,000여 명의 백군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지휘관 봉상은 5,000여 명의 청군 포로를 석방한 후 죽음을 맞았다.

솔레 전투 패배 이후 방데인들은 대탈출을 감행했다. 소위 말하는 “갈레른 유랑”이 그것이다.¹⁷⁾ 남편 레스퀴르 장군을 따라 이 대장정에 참여한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의 추산에 의하면 약 8만 명의 방데인들(이 가운데 무장병사는 6만, 나머지는 여자, 어린이, 노인)이 약 4km의 행렬을 이루어, 루아르강을 건너 그랑빌(Granville)을 향해 북진했다.¹⁸⁾ 이들의 희망은 루아르 강 이북, 즉 부르타뉴 지방에서 농민반란을 일으키고, 영국군의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은 그랑빌 점령에 실패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지휘관들은 노르망디로 행군할 것을 고려했으나, 싸움에 지친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집했다. 결국 병사들의 압력에 의해 남쪽으로 방향을 튼 방데인들은 공화파에게 일방적으로 쫓기는 유랑민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양계 점령에 실패한 후, 이들은 전쟁터에서 죽든지 포로로 잡혀 죽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체념했다. 르망 전투에서는 7,000여 명을 잃었다.¹⁹⁾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6-7,000명의 방데인들은 1793년 12월 23일 사브내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다. 남편을 잃고 유랑민 사이에 끼어있던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은 부르타뉴의 벽촌에서 순박한 농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숨어 지내다가 1794년 말에 사면을 받고 세상에 나오게 된다. 사브내 전투의 패배로 방데전쟁은 끝이 났다. 물론 방데군의 샤투르 장군이 누아르무티에에서 항전을 계속했으나,

17) La virée de Galerne. 비레(virée)는 짧은 여행, 선회라는 뜻이고, 갈레른(Galerie)은 프랑스 서부 지방에 부는 차갑고 습한 북서풍을 말한다.

18) 장클레망 마르탱은 6만~10만 명(전투병력은 3~4만 명)으로 추산한다.

19)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은 희생자를 15,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대세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의 표현에 의하면, 방데군은 ‘소멸’되었다.²⁰⁾

방데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농민들이 봉기를 넘어 ‘가톨릭근왕군’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반혁명전쟁에 돌입한 것은 혁명정부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레날 세세르는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만큼, 방데전쟁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혁명정부에 맞서 혁명을 지키려는 전쟁이었으며, 「인권선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저항권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저항 동기가 아무리 정당했다고 해도 마슈쿨 학살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방데전쟁은 방데의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정부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방데군이 패배했다. 전쟁이 학살과 보복을 동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전쟁 이후의 전후처리이다.

3. 양민 학살

사브내 전투를 종료한 후, 웨스테르만 장군은 공안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공화국 시민들이여, 이제 더 이상 방데는 없습니다. 방데는 그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자유로운 칼 아래 죽었습니다. 나는 방데를 사브내의 늪과 숲 속에 묻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내린 명령에 따라, 나는 아이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았고, 여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비적들을 낳지 못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포로도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²¹⁾

20)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387.

21) 당시 혁명정부는 반도들을 ‘비적’이라고 불렀다. ‘비적’은 구체제에서도 반도

방데전쟁시기에 자행한 학살로 인해 “방데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은 웨스테르만의 유명한 보고서이다. 이렇게 포로는 물론이고 여자와 아이들 모두 학살했다는 것은 학살에 참여한 병사의 편지에서 도 확인된다.²²⁾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웨스테르만은 이것이 공안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웨스테르만 장군이 무차별 학살은 공안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한 것은, 1793년 12월 말이 되면 공안위원회가 국가권력의 핵심 기관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방데전쟁 초기만 해도 상켈로트와 국민공회(공안위원회)는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였다. 방데전쟁에서 자행된 무질서한 학살은 부분적으로는, 장 클레망 마르탱이 강조하듯이,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무게중심은 서서히 국민공회로 이동하였다. 혁명력 2년 상월(霜月) 14일(1793년 12월 4일)의 ‘혁명정부조직법’은 “국민공회는 통치의 유일한 추진체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공회(공안위원회)의 중앙집권화를 확립했다. 웨스테르만 장군의 보고서는 이러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증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브내 학살 이후 웨스테르만은 파리로 소환되어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당통파와 함께 처형당했다. 처형 이유가 사브내 학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웨스테르만의 학살이 공안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일이다.

양민학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은 공안위원회를 거쳐 국민공회

들에게 사용된 용어였다.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을 보호해준 브르타뉴의 농민들도 이들을 비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적이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었다.

22) 1793년 말 스트라스부르 출신 병사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 마을, 요새 등을 약탈한 다음 불 질렀습니다. 낭트에서부터 방데 지방의 루아르강 건너편까지, 모든 것은 재로 변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역에는 나무 한 그루 남아 있지 않습니다.”(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oints, 2014, p.145에서 재인용).

에서 통과된 1793년 8월 1일의 법과 1793년 10월 1일의 법이다. 웨스테르만이 말한 공안위원회의 “명령”은 이 두 법이라고 볼 수 있다. 8월 1일, 공안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한 바래르는 국내외의 상황을 개관한 후, 방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국내가 평화롭게 되고, 반도들이 진압되고, 비적들이 전멸된 다음에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외국 열강의 정복과 배신은 방테도(道)가 그 파렴치한 이름과 반역적인 죄인들을 잃어버리는 날 끝날 것이다. 방테가 없으면 국왕주의도 없다. 방테가 없으면 특권계급도 없다. 방테가 없으면, 공화국의 적들은 사라질 것이다.

바래르는 비적들의 전멸(extermination)을 요구한 것이다. 바래르는 이들을 “반역적인 족속”(cette race rebel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비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인가 아니면 방테의 전(全)주민인가? 8월 1일의 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래르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제 8조)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건물 안으로 인도될 것이며, 음식과 안전을 제공받고, 인간에게 합당한 모든 대우를 받을 것이다.”²³⁾ 장 클레망 마르탱은 이 조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웨스테르만의 양민학살은 이 법을 어긴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안위원회는 학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Article 8. Les femmes, les enfans et les vieillards seront conduits dans l'intérieur. Il sera pourvu à leur subsistance et à leur sûreté, avec tous les égards dus à l'humanité. 여기에서 건물 안(intérieur)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전쟁터가 아니라 안전한 집을 뜻하는지 아니면 1793년 8월 1일의 법과 1793년 10월 1일의 법을 폐지하기 위해 2012년 2월 23일 상원에 발의된 법안 설명에 나오듯, 일종의 강제수용소(déportation)를 뜻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국민공회에서는 방테인들을 마다가스카르로 강제이주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Jean-Clément Martin, *Contre-Révolution, Révolution et Nation en France 1789~1799*, p.218).

1793년 10월 1일의 법은 8월 1일 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제안자는 변함없이 “기요틴의 서정시인”으로 악명 높은 바레르였다. 바레르는 “이해할 수 없는 방데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긴 연설을 마친다: “자유 의 병사들이여, 10월 말까지는 방데의 비적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조국의 안전(salut)이 그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인민의 초조함이 그것을 명하며, 프랑스인민의 용기가 그것을 완수할 것이다...” 웨스테르만이 “이제 더 이상 방데는 없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데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바레르의 말에 대한 화답 일지 모른다. 그런데 10월 1일의 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8월 1일 법의 제8조의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은 어린이, 여자, 노인들이 비적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가톨릭교회와 국왕의 군대는 오랫동안 15,000, 25,000, 30,000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오늘날 브레스트 해안에 파견된 인민대표들의 보고에 의하면 대략 100,000명 정도의 비적이 있다. 하나의 부대, 하나의 집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세 개의 부대, 세개의 집단이 있다. 10살부터 66살까지의 비적은 괴수들의 선언에 의해 징집되었다. 여자들이 주역이다. 반란지의 전(全)주민이 무장 반도다.

1793년 8월 1일의 법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학살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10월 1일의 법에는 그 조항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적 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웨스테르만 장군은 자기의 말대로 공안위원회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셈이 된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자신의 모든 저서에서 1793년 8월 1일 법의 제8조가 1793년 10월 1일의 법에도 계속된다고 되풀이 강조하는데, 근거가 희박하다.²⁴⁾

24)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p.38; Jean-

법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이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비적과 양민을 구분하여 준법적으로 전투를 벌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클레망 마르탱도 인정하듯이, 현장의 병사들은 8월 1일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²⁵⁾ 현장의 병사들에게는 여자, 어린이, 노인들도 비적이었다. 방데인들의 전쟁 방식은 남자들은 전투하고 여자들은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었지만, 전투가 끝나고 공화파 군인들이 패주하여 보카주 지방의 오솔길을 헤매는 동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이들을 괴롭히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청군은 언제나 손에 불을 들고 행군했다. 그들의 승리는 언제나 학살을 동반했으며, 여자들과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인들도 죽음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공회는 전지역을 사람이 없고 집도 없고 심지어는 나무도 없는 사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부분적으로 집행되었다.²⁶⁾

이제 제노사이드 논쟁의 핵심인 지옥종대(les colonnes infernales)의 양민학살에 대해 살펴보자. 사브네 전투 이후 방데전역(戰域)의 최종해결을 맡은 사람은 서부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튀로 장군이였다. 튀로는 초토화작전을 결정했다. 그는 서부군을 두 개의 군단으로 나누어, 자신이 맡은 군단은 12개의 종대로 편성했고, 악소 장군에게는 8개의 종대를 구성하게 했다. 이렇게 모두 20개의 종대가

Clément Martin, “Vendée: les criminels de guerre devant leurs juges”, *Histoire*, n.209, 1997년 4월; Jean-Clément Martin, *Violence et Révolution. Essai sur la naissance d'un mythe national*, Seuil, 2006, p.205; Jean-Clément Martin, *La Vendée et la Révolution. Accepter la mémoire pour écrire l'histoire*, Perrin, 2007, p.93;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oints, 2014, p.197.

25) Jean-Clément Martin, *La Vendée et la Révolution*, p.95;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304.

26)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257.

편성되었다. 전체 병력은 종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나 대략 1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옥종대는 루이 16세가 처형된 1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방데초토화작전을 벌여 20,000~40,000 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파괴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공화파 주민까지 포함한 전(全)주민이 학살 대상이었다. 제노사이드 논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튀로 장군이 공안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튀로 장군은 서부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방데 초토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안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아무런 회신이 없자, 그는 다시 1794년 1월 17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분명한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를 도륙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책임을 덮어 줄 수 있는 명령 없이는 그러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튀로는 무장반도, 여자, 아이들, 의심스러운 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튀로의 명령을 받아 위세 장군은 자기 종대의 병사들에게 농민들과 여자들은 스파이이기 때문에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⁷⁾ 국민공회는 1794년 1월 말에도 여전히 무장한 여자, 어린이, 노인들을 포함한 비적들은 단호히 제거하되, 무장하지 않은 여자, 어린이, 노인들은 보호하라고 말했으며,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두 명의 특임인민대표를 파견했다.²⁸⁾ 튀로는 파리로부터 회신이 없자, 다시 청원서를 보냈다. 드디어 1794년 2월 24일 공안위원회는 카르노를 통해 튀로의 작전을 승인하는

27)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231.

28)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p.40; Jean-Clément Martin, *La Vendée et la Révolution*. pp.96~8.

편지를 보냈다.

장군은 공안위원회로부터 장군의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해 불만이군요. 공안위원회가 보기에 장군의 조치는 적절하고 완벽합니다. [...] 비적들을 최후의 일인까지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장군의 의무입니다...²⁹⁾

튀로의 초토화작전은 공안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공안위원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무차별학살이 자행되고 있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병사들은 남자와 여자, 비적과 애국파, 선서신부와 선서거부신부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했다. 이들은 비무장인들을 구분하여 별도로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수용(déportation)은, 장클레망 마르탱도 인정하고 있듯이, 비무장인을 보호하려는 예방적 조치가 아니라 ‘보복’의 일환이었다.³⁰⁾

튀로 장군은 왜 그렇게 야만적인 학살을 벌인 것일까? 그는 방데군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누아르무티에에 남아 있던 샤퐀 장군의 부대를 의식한 것일까? 장 클레망 마르탱은 그렇다고 본다. 그들은 여전히 ‘위험’했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다. 르망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방데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솔레 전투에서 패배하고 루아르 강을 넘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을 지도 모른다. 르망 전투 패배 이후,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이것이 르망의 비참한 패배 모습이다. 여기에서 방데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29) 튀로와 공안위원회 사이의 편지는,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p.158~9.

30)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232.

31) Jean-Clément Martin, *La Vendée et la Révolution*. pp.89~90.

받았다. 그것은 불가피했다. 우리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을 데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피신하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채, 게다가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루아르 강 좌안을 떠났을 때부터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었다. 장군들과 병사들이 받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은 그것을 오랫동안 늦추었다는 것이다.³²⁾

지옥중대의 초토화작전과는 별도로, 1794년 1월, 앙제에서는 2000여명의 포로들을 학살했는데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 낭트에서는 더욱 야만적인 학살이 벌어졌다. 특임인민대표인 카리에는 1793년 10월말부터 1794년 2월초까지 낭트지역에 수용된 수많은 포로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두대가 아니라 총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된 수천 명의 포로가 처형되었다. 더욱 악명높은 것은 수천명의 포로들을 루아르 강에 빠뜨려 죽인 것이다. 여자들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서는 두 명의 벌거벗긴 남녀를 한데 묶어 빠뜨려 죽이는 “공화파 결혼”(mariage républicain)도 자행되었다.³³⁾

현지의 혁명가들은 물론이고 파리의 혁명가들도 경악했다. 카리에는 1794년 2월초에 파리에 소환되어 1794년 7월 테르미도르 정변 후 재판을 받고 권력남용죄로 사형당했다. 카리에의 야만적인 방법은 국민공회의 지시를 받지 않은 카리에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선언한 것이다.³⁴⁾ 반면, 튀로는 1794년에 투옥되었다가 테르미도르파에 의해 사면을 받고 풀려났지만,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기

32)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p.385~6.

33)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장 클레망 마르탱의 입장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oints, 2014, p.220에서는 그것이 비록 체계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시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34) 카리에 재판에 대해서는, Gracchus Babeuf, *La guerre de la Vendée et le système de dépopulation*, Tallandier, 1987(원저는 1794); 오광호, 「방데전쟁과 ‘인구감축체제’, 『호서사학』 48, 2007년 12월; 오광호, 「카리에와 낭트의 수장, 『프랑스사연구』 27, 2012년 8월.

위해 다시 재판을 청구했고, 1795년 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 로베스피에르가 만약의 근원으로 몰리던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있고 튀로는 공안위원회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쟁 중에 무장한 병사가 사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무장 양민학살은 다르다. 방데전쟁의 경우에는, 국민공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민학살이 자행되었으며, 특히 그 방법은 혁명가들을 경악시킬 정도로 비열하고 야만적이었다. 방데군이 포로로 잡은 한 공화파 장교의 주머니 속에는 농민들에게 사면을 약속한 후 농민들이 투항하면 학살하라는 명령서가 들어 있었다.³⁵⁾ 반도들은 물론이고 애국파도 학살의 대상이었다. 말하자면 방데라는 특정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학살 대상이었던 것이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방데의 피난민들은 학살을 면했다는 사실을 들어 방데 학살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강력한 증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³⁶⁾ 방데인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학살을 당한 것이다.

4. 누구의 책임인가?

제노사이드란,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협정’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가적, 종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집단의 전체 혹은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을 죽이는 행위, 집단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35)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ein, *Mémoires*, p.464.

36)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300.

가하는 행위, 집단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집단의 생활 조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집단 내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정립한 라파엘 렘킨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파괴 행동들이 정부의 “통합적 계획”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하면, 현장 지휘관의 우발적이거나 산발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제노사이드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방데전쟁 시기의 양민학살이 국민공회의 법에 의한 것인지,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 클레망 마르탱 같은 역사가들은 양민학살이 자행되기는 했지만 국민공회의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님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제노사이드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레날 세세르는 양민학살이 국민공회의 법과 공안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자행되었기 때문에 제노사이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레날 세세르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가 1793년 11월 11일과 1793년 12월 19일 사이에 작성한 20건의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³⁷⁾ 레날 세세르는 이 문서들이 제노사이드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문서들은 “비적을 전멸시켜라”(exterminer les brigands), “반도들의 히드라를 괴멸시켜라”(écraser l'hydre des rebelles), “이 불순한 족속들을 절멸시켜라”(anéantir cette race impure), “자유의 땅을 정화시켜라”(purger entièrement le sol de la liberté) 등과 같은 과격하고 인종주의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방데전쟁을 종식시키라고 말하고 있을 뿐, 비무장 양민들도 학살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레날 세세르가 최초의 저서 이후에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37) Reynald Secher, *Vendée: Du Génocide au Mémoricide*, pp.80~90.

제시하고 있는 문서들은 웨스테르만의 충격적인 보고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공안위원회가 양민학살을 명령하고 승인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해주는 문서는 웨스테르만의 보고서와 공안위원인 카르노가 튀로 장군에게 양민학살을 추진해주는 편지 정도이다. 관련 문서가 사라진 것은, 레날 세세르가 말한 대로, 공안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기억학살”을 범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근거는 없다.

공안위원회는 “비적을 전멸시켜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비적의 범위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무장반도만 비적인가 아니면 전(全)주민이 비적인가? 현지의 사령관들은 비적을 전(全)주민으로 해석했다. 웨스테르만은 명령대로 전주민을 학살했다고 말했다. 튀로 역시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자유의 땅에서 이 저주받은 족속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 방데를 “공동묘지”로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³⁸⁾ 1794년 테르미도르 정변 이후에 열린 재판에서 카리에는 비적을 전주민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재판을 자세히 분석한 바뵈프도 카리에는 말이 옳다고 지지했다.³⁹⁾ 공안위원회는 양민을 학살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비적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로베스피에르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주는 증언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엇갈린다. 레날 세세르에 의하면, 카리에의 만행을 전해들은 로베스피에르는 “그는 애국자이다. 그는 자기의 의무를 알고 있다. 낭트는

38) Reynald Secher, *Vendée: Du Génocide au Mémoricide*, p.132. 같은 무렵 리옹에서 기관총을 사용하여 소위 연방주의자들을 학살한 “일제사격자” 푸셰 역시 비슷한 투로 방데인들을 비난했다. “방데의 광신자들은... 정의와 인류를 경악시켰다... 그들이 모독한 땅을 정화해야 한다.”(Jean-Clément Martin, *Contre-Révolution, Révolution et Nation en France 1789~1799*, p.214).

39) Gracchus Babeuf, *La guerre de la Vendée et le système de dépopulation*, p.141.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⁴⁰⁾ 그러나 장 클레망 마르탱의 이야기는 다르다. 로베스피에르는 낭트에 개인 정보원인 쥘리앵을 파견하여 카리에의 만행을 비판했고, 과격혁명가들의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1794년 2월 국민공회가 카리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3월에 로베스피에르가 에베르파를 제거한 것은 그 최종적인 결실이다.⁴¹⁾ 튀로 장군에 대해서도, 장 클레망 마르탱은 로베스피에르가 무관하다고 말한다.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12월부터 1794년 1월 까지 방데전쟁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쥘리앵 혁명가들 사이의 당파 싸움에 빠져들지 않았으며, 튀로의 승인 요청에 대해서도 카르노를 통해 원칙적인 승인을 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⁴²⁾

누구의 책임인가? 레날 세세르와 장 클레망 마르탱은 방데전쟁을 전공한 역사가이지만 이들의 관점은 대립적이다. 역사가들의 논쟁이지만 사실보다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레날 세세르는 양민학살이 국민공회(공안위원회)의 명령과 승인 하에 진행되었으며, 카리에와 튀로는 하수인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그는 방데학살은 정부가 주도한 체계적인 학살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치의 유대인학살에서처럼 가스를 사용하였고, 인체를 용해시켜 기름을 얻었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기까지 했다고 주장한다.⁴³⁾ 한 마디로, 방데학살은 나치의 유대인학살의 모델

40) Reynald Secher, *Vendée: Du Génocide au Mémoricide*, p.120.

41) Jean-Clément Martin, *Vendée : les criminels de guerre devant leurs juges*, *Histoire*, n.209, 1997년 4월.

42) Jean-Clément Martin, *Violence et Révolution*, p.222.

43) Reynald Secher, *La Vendée-Vengé. Le génocide franco-français*, p.175 ; Reynald Secher, *Vendée: Du Génocide au Mémoricide*, pp.105~6. 생쥐스트는 1793년 8월 14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피동에서 인간의 가죽을 무두질했다. 인간의 가죽은 야생 영양의 가죽보다 더 질기고 아름답다. 여자의 가죽은 더 부드럽지만 덜 질기다.” 장클레망 마르탱은 군의관인 페렐이 30여 시신의 가죽을 벗겼다고 말한다(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1793~1800*, Points, 2014, pp.180, 243).

이 된 제노사이드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방데학살은 나치의 유대인학살과 스탈린학살의 원형이다.

반면, 장 클레망 마르탱은 1793년 8월 1일 법과 10월 1일 법은 양민학살을 금했으며, 웨스테르만 장군의 양민학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8월 1일 법에 있는 양민학살을 금지하는 조항은 10월 1일의 법에는 빠졌을 뿐만 아니라 10월 1일 법은 양민학살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옥중대의 초토화 작전에 대해서도, 로베스피에르는 카르노를 통해 튀로의 요청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만 하게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베스피에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로베스피에르를 변호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이다. 장 클레망 마르탱은 당시는 ‘국가부재’라 할 정도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던 시기로, 지방에서는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특임인민대표들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혁명가들의 권력다툼으로 폭력성이 상승했다고 말한다. 공안위원회는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별다른 권력과 지위도 없었다고까지 말한다.

공안위원회의 행동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과격한 연설 외에는 가능한 개입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독재자’의 등장을 두려워한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패덕한 사람으로, 앞으로는 인민의 적으로, 지목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사람들과 말이다. 로베스피에르의 도덕적 인도자라는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무지나 로베스피에르의 유포피아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그러한 것들은 그가 국민공회에서 차지한 정말로 약한 지위에서 나온 것이다.⁴⁴⁾

44) Jean-Clément Martin, *Violence et Révolution*, p.225.

그런데, 당시 아무리 상퀼로트의 권력이 강력했다고 해도, 공안 위원회와 로베스피에르의 권력이 그렇게 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1793년 12월 4일(상월 14일) 법은 그동안의 일종의 무정부상태를 마감하고 공안위원회의 혁명적 독재를 확립시켰다. 팔머는 “상월 14일의 법은 ‘인권선언’과 같은 항구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그 의미를 강조한다.⁴⁵⁾ 1793년 말부터는 공안위원회가 파리 코뮌, 민중협회, 지방행정기관, 특임인민대표 등을 제압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방데의 경우, 현지의 사령관들이 공안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공안위원회가 카리에를 소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안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을 증명해준다. 장 클레망 마르탱 자신도 같은 책에서 1793년 12월 말이 되면 공안위원회는 행정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이다.⁴⁶⁾ 동시대의 증인인 바뵈프는 로베스피에르 혼자만으로도 공안위원 전부보다 더 강력했다고 말한다.⁴⁷⁾ 장 클레망 마르탱은 로베스피에르에게 모든 비난이 집중된 것은 1794년 테르미도르 정변으로 로베스피에르를 몰아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로베스피에르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⁸⁾ 악명높은 공포정치를 주도한 것은 상퀼로트이며 로베스피에르는 오히려 공포정치를 지지하려 했다고도 말한다.⁴⁹⁾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3월에는 상퀼로트를 제거하고, 4월에는 당통파를 제거한 후, “사형 아니면 석방”만을 가능하게 한 목월의 법을 제정하여 ‘대공포정치’를 체계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클레망

45) R. R. Palmer, *Twelve who ruled. The Year of the Terror in the French Revolution*, Princeton UP, 1989, p.128.

46) Jean-Clément Martin, *Violence et Révolution*, p.192.

47) Gracchus Babeuf, *La guerre de la Vendée et le système de dépopulation*, p.142.

48) Jean-Clément Martin, *La guerre de Vendée en 30 questions*, p.40.

49) Jean-Clément Martin, *La Terreur. Part maudite de la Révolution*, Découverte Gallimard, 2010, p.66.

마르탱은 멀리는 테르미도르파로부터 가깝게는 로베스피에르를 제노사이드의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로베스피에르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가라기보다는 이데올로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로베스피에르가 공안위원회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공안위원회에서 약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민학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1793년 말부터는 공안위원회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안위원회는 포괄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안위원회는 1793년 10월에 리옹을 파괴했듯이 방데를 파괴했다. 그러나 정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민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약 20만 명의 방데인이 야만적인 학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농민들을 ‘비적’으로 단죄한 것부터 혁명정부는 구체제의 군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구체제와 똑같이 진압했다.⁵⁰⁾ 방데에는 ‘인권선언’도 없었고, ‘자유-평등-형제애’도 없었다. 구체제의 야만이 있었을 뿐이다. 프랑스혁명은 없었다.

5. 맺음말

방데전쟁은 1793년 3월 19일에 시작되어 1793년 12월 23일 사브네 전투로 끝났다. 이 9개월 동안 방데의 농민군과 혁명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혁명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1793년 12월 말부터 1794년 초까지 진행된

50) François Lebrun, “La guerre de Vendée : massacre ou génocide?”, *L’Historien*, n.78, 1985(년) 5월; Jean-Clément Martin, *Violence et Révolution*, p.162.

승자의 가혹한 전후처리였다. 공화파 주민을 포함한 전(全)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 야만적인 학살이 현지 사령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공안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공안위원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로베스피에르는 폭력적인 상퀼로트에 맞서 공포정치를 막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상퀼로트와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공포정치가 진정된 것이 아니었다. 로베스피에르는 폭력을 집중시켰고, 그것은 ‘대공포정치’로 폭발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상퀼로트를 몰아낸 것은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폭력이 진정된 것은 1794년 7월의 테르미도르 정변에 의해서이다. 테르미도르 국민공회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안위원회의 결정들을 무력화시키고, 학살에 관련된 장군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반(反)로베스피에르주의자들은 방데인들에게 사면을 선포했으며, 1795년 2월에는 샤투트와 5월에는 스토폴레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방데인들을 ‘비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3일간의 구류 처벌을 내릴 정도로 이들의 화해 의지는 강력했다. 최종적으로 나폴레옹은 1799년 12월에 “부당한 법이 공포되었고 집행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방데 사건을 종식시켰다.

그 후 방데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19세기 이래 프랑스혁명을 지배해온 공화주의 역사가들과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방데전쟁을 반혁명전쟁으로 규정하고, 방데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들은 방데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의 공포정치는 외전과 내전의 시기에 국가와 혁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받아들인 반면, 방데전쟁 후에 자행된 폭력적인 전후처리에 대해서는 외면해왔다.⁵¹⁾ 이들의 역사에서 방데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방데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수정주의 역사가들부터 나왔다. 프랑수아 푸레는 소불이 공안을 이유로 폭력을 용서하는 것에 반대했다. “방데의 파괴와 동시에 진행된 방데인들의 대량살육(hécatombe)은 공안(Salut public)이라는 구실로 사면될 수 없는 혁명의(기) 공포정치(terreur)의 가장 커다란(최대 규모) 집단학살이었다.”⁵²⁾

방데전쟁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킨 사람은 레날 세세르였다. 그는 방데전쟁 이후 벌어진 전후처리는 공안위원회가 주도한 제노사이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주의 해석을 고수하는 장 클레망 마르탱은 공안위원회가 주도하지도 않았으며, 제노사이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방데에서의 폭력은 구체제의 농민반란에 대해 가해진 폭력과 같은 수준의 폭력이었으며, 방데에서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도 많이 행해졌는데도 방데전쟁만을 제노사이드라고 단죄하는 것은 역사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제노사이드를 국가의 통합적 계획에 의한 집단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 학살이라고 정의할 경우, 방데학살은 제노사이드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면 사실상 모든 학살이 제노사이드에 속하게 되어 제노사이드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제노사이드는 ‘다른 종족의 전면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학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프랑스인에 의한 프랑스인의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 방데학살이 제노사이드인가를 판별하는 논쟁은, 레날 세세르와 장 클레망 마르탱의 논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을 통해 확인할

51) 알베르 소불, 최갑수 옮김, 『프랑스대혁명사』 하권, 두레, 1984, 45쪽.

52) François Furet, “Vendée”, François Furet, Mona Ozouf(ed.), *Dictionnaire critique de la Revolution française*, Flammarion, 1988, p.194.

수 있는 것은 방데전쟁에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폭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프랑스혁명은 아무런 단절을 가져오지 않았다. 구체제의 폭력보다 더 가혹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자유-평등-형제애’를 외친 혁명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혁명은, 한나 아렌트가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하며 평가했듯이,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5.6.3,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방데전쟁, 제노사이드, 로베스피에르, 상퀼로트, 장 클레망 마르탱, 레날 세세르, 웨스테르만, 튀로, 라로슈자클랭 후작부인, 베르트랑 바래르

<ABSTRACT>

The Violence of the War of Vendée

Kim Eung-jong

The War of Vendéen broke out in March 1793, and finished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For these nine months, the peasants of the Vendée region and the revolutionary armies were at 'war' against each other, and the latter won the final victory. What caused the historical controversy was the relentless punishment after the war, during which were killed all the inhabitants including the republicans.

After the War of Vendée, the republican historians and the marxist historians who dominated the historiography of the French Revolution, defining it as the counter revolutionary war maintained their negative position on the war of Vendée. They accepted the Terror committed in that period as the inevitable measur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 and the revolution during the simultaneous wars in and out of the country, while they neglected the violent treatment after the war. The new interpretation of the War of Vendé came from the revisionist historians. François Furet criticized Albert Soboul for tolerating the violenc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public safety. It was Reynald Secher who heated up the debate. He argued that the treatment after the war was the 'genocide' conducted cautiously by the public safety committee. Jean-Clément Martin who represented the 'orthodox' position counter-attacked him by arguing that the public safety committee did not lead the massacre and, for that reason, the massacre was not the genocide.

If we define the genocide as the total or partial mass massacre by an integral state policy, the Vendée massacre can be included in this category. But if we expand the scope of the genocide in this way, all

the massacres can belong to the genocide, which makes the concept of the genocide meaningless. That is the reason why the genocide should be defined strictly as “the systematic destruction of the other ethnic group”. Viewing the Vendée massacre in this perspective, “the genocide of the French by the French” cannot stand. In the historical conscience of the War of Vendée,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judge whether it is a genocide or not but to confirm the fact that a barbarous violence was committed by the revolutionary armies. In the dimension of the violence, the French Revolution of 1789 made no difference.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very revolutionaries who cried out “Liberty–Equality–Fraternity” continued the inhuman violence of the Ancient Regime type.

Key Words : War of Vendée, Genocide, Robespierre, Sans-Culotte, Jean-Clément Martin, Reynald Secher, Westermann, Tureau, Madam la marquise de Larochejacquelein, Bertrand Barère